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 분묘 석상에 대한 조형성 연구  
—동자석을 중심으로—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faint watermark in the background.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leaf shape in blue, green, and grey, with a purple 'J' shape to the right. Below the graphic, the text 'JEJU 1952' is visible. The words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1952' are written in a circular path around the central graphic. At the bottom, the Korean text '제주대학교' is written in a semi-circle.

濟州大學校 大學院

美術學科

강 세 윤

2011年 2月



# 제주 분묘 석상에 대한 조형성 연구 -동자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방 희

강 세 움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年 2月

강세움의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年 2月

<국문초록>

제주 분묘 석상에 대한 조형성 연구  
-동자석을 중심으로-

강 세 움

제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조소전공

지도교수 김 방 회

제주도는 화산분출로 생성된 심으로 예로부터 육지와 활발하지 못한 교류로 열악한 환경의 삶을 이어왔다. 이러한 삶 속에서 제주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은 돌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분묘를 장식하는 석상들이 그러한 돌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동자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이전 문헌연구 사례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집중 분석하였다.

제주 석상은 조선시대의 유교 영향으로 분묘가 형성 되면서, 제주의 지리·자연 환경 조건들로 인해 육지와는 또 다른 형태로 설치되었다. 망자의 장례 형식 중에서 예를 갖춰 분묘를 장식하는 것은 대부분 비석,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의 석상과 여러 기타석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동자석은 어린아이의 형상을 제작한 석상으로서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여러 석상들을 비롯하여 무덤을 지키는 무속 신앙의 내면적인 의미가 있으며, 기능면에서는 주술효과를 보기 위해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물(持物)’로 망자가 사후세계에서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수호신이 되거나 심부름꾼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속신앙적인 내면을 표현하였다. 그것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의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동자석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 동자석과 그 지물을 통하여 제주의 무속·민속적인 경향의 분묘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동자석은 제주 석재인 현무암, 조면암, 용암석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제주 석재는 육지 석재에 비해 돌의 조직이 조밀하지 않고 질이 무르고 부서지기 쉬운 결점이 있다. 그 결점은 육지의 세밀한 형태로 묘사된 석상보다는 기교적이지 않지만 재료의 특징으로 인해 절제와 단순함의 조형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은 제주 석상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형태에 따른 동자석의 조형적인 특징으로는 표현성에 있다. 동자석의 안면표정이나 지물의 표현을 통해 그 동자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기능을 알 수 있기에 대체로 하체는 생략이 되고 상체의 표현이 강조된다. 상체 중에서도 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편으로, 그 비율이 두상과 몸체에 따라 3:1 또는 2:1로 나타난다.

동자석 안면에 대한 세부조사 내용은 조사한 동자석들 대부분이 얼굴형태가 기하학적인 도형일수록 전체적인 표현은 단순한 음각으로 처리되어 경직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반면, 사람형상에 가까운 형태 즉, 모가 나지 않은 형태일수록 입체적인 양각으로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동자석은 돌하르방처럼 재료에서 보이는 특성과 조형적인 표현이 지역별로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는 없지만, 옛 장인들의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절제와 단순함의 조형미를 개성있게 제작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다양한 돌 문화 가운데 다른 석상들 뿐만 아니라 동자석도 선조가 남긴 소중한 유산으로 후손들이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문화재로서 인식이 부족한 실정 속에 밀반출이 되어 오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써, 제주인 모두가 소중히 다뤄야 할 문화유산으로 새삼 재인식 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제주석상의 조형미를 재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며, 제주인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동자석은 돌하르방처럼 현대적 조형물로 재조명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모색하고 발전되어야 하겠다.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II. 제주 분묘 석상의 형성 배경 .....	3
1. 제주 분묘의 형성 .....	3
2. 제주 분묘 석상의 종류 .....	5
3. 석상의 배치 .....	18
III. 동자석의 형성 및 조형성 분석 .....	19
1. 동자석의 형성 .....	19
2. 동자석의 형태에 따른 분류 .....	22
3. 동자석에 나타난 상징성 분석 .....	44
IV. 결론 .....	51

참고문헌 .....	
53	
<ABSTRACT> .....	
55	

### 표 목 차

<표 1> 제주 동자석의 암질별 분포 현황 .....	
2	1

### 그림 목 차

<그림 1> 비석 문양 .....	
6	
<그림 2> 거북이 대석 .....	
6	
<그림 3> 뚜바지역의 석인상 .....	
8	
<그림 4> 동자석 .....	
9	
<그림 5> 문인석 .....	
1	1
<그림 6> 망주석 .....	
1	3
<그림 7> 망주석 .....	

1	3
<그림 8> 망주석 .....	
1	3
<그림 9> 망주석 .....	
1	3
<그림 10> 산담 .....	
1	4
<그림 11> 토신단 .....	
1	4
<그림 12> 상석 및 혼유석.....	
1	5
<그림 13> 향로석 .....	
1	6
<그림 14> 돌잔 .....	
1	6
<그림 15> 장명등 .....	
1	7
<그림 16> 조선시대 분묘 석상 및 석물 배치도 .....	
1	8
<그림 17> 현무암 .....	
2	0
<그림 18> 3:1의 신체비례 .....	
2	2
<그림 19> 2:1의 신체비례 .....	
2	2
<그림 20> 통정대부 대정현감고공지묘 (政大夫大 靜縣監高公之墓) .....	
2	4
<그림 21> 전주이씨지묘 (全州李氏之墓) .....	
2	5

<그림 22> 000홍공종훈지묘 배후인 김해김씨 (000洪公種勳之墓 ) .....	6
2	
<그림 23> 향대부현공지묘 (鄉大夫玄公之墓) .....	7
2	
<그림 24> 전력부위 조공명남지묘 (展力副尉曹公命南之墓) .....	8
2	
<그림 25> 배숙부인고씨 통정대부호조000 (配淑夫人高氏 通政大夫戶曹000)··	9
2	
<그림 26> 통정대부공지묘 (通政大夫公之墓) .....	0
3	
<그림 27> 의인남호문씨 무과제장공신호 (宜人南乎文氏 武科第張公信浩).....	1
3	
<그림 28> 인동장씨 진주강공묘O (仁同張氏 信州康公墓O) .....	2
3	
<그림 29> 훈원관관 호산신공숙지묘 (訓院判官 乎山申公淑之墓) .....	3
3	
<그림 30> 통정대부 평산신공귀종지묘 (通政大夫 乎山申公貴終之墓) .....	4
3	
<그림 31> 거사양공지묘 (居士良工之墓) .....	5
3	
<그림 32> 군위오씨명월파 (軍威吳氏明月派) .....	6
3	
<그림 33> 군위오씨명월파 (軍威吳氏明月派 ) .....	7
3	
<그림 34> 입도저구세손합묘 (入島祖九世孫合墓) .....	8
3	
<그림 35> 입도저구세손합묘(入島祖九世孫合墓 ) .....	9
3	
<그림 36> 원형 .....	

4	0
<그림 37> 달걀형 .....	
4	0
<그림 38> 타원형 .....	
4	1
<그림 39> 각이 진형 .....	
4	1
<그림 40> 양각 .....	
4	1
<그림 41> 음각 .....	
4	1
<그림 42> 둥근 코 .....	
4	2
<그림 43> 뾰족한 코 .....	
4	2
<그림 44> 손상된 코 .....	
4	2
<그림 45> 음각, 양각 입모양 .....	
4	3
<그림 46> 타원형+음각 .....	
4	3
<그림 47> C자형 .....	
4	3
<그림 48> C자형+원형모양 .....	
4	3
<그림 49> C자형2개+원형모양 .....	
4	3
<그림 50> 주걱턱 .....	
4	4



<그림 51> 홀 .....	45
<그림 52> 순가락(주걱) .....	
4	6
<그림 53> 순가락(주걱) .....	
4	6
<그림 54> 순가락(주걱) .....	
4	6
<그림 55> 술잔 .....	
4	6
<그림 56> 술잔 .....	
4	6
<그림 57> 술병 .....	
4	6
<그림 58> 창 .....	
4	7
<그림 59> 부채 .....	
4	7
<그림 60> 새(오리) .....	
4	8
<그림 61> 뱀 .....	
4	9
<그림 62> 꽃(연꽃) .....	
5	0

## I. 서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런 이유로 사회·문화면에서 ‘단절’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지리와 자연환경적인 특성은 육지와는 다른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변의 자연물을 이용한 돌문화가 생활 전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돌 문화는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돌은 옛 조상들에게 있어 망자의 혼과 넋을 기리는 매개체로써 흔적을 남겼으며,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돌의 특성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분묘에 설치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석상들은 그 시대정신과 문화적인 성격이 반영되어 왔지만, 여러 석상을 비롯해 동자석을 제작하던 당시의 옛 장인들의 전통과 맥이 전수되어 오지 못하였기에 분묘에 설치된 동자석들을 통해 당시의 조형물을 연구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의 자연환경이 석상에 미친 조형성을 유추하여 보고, 분묘 석상 중에서도 동자석에 드러나는 제주 석조의 미의식과 조형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묘의 석상 형식은 육지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는 제주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색다른 조형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인 동자석은 제주를 대표하는 돌하르방과 달리, 조형물로써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분묘 석상인 동자석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제주미가 돋보이는 조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묘 석상이 설립되기까지는 조선시대의 유교 영향으로 분묘가 형성이 되면서, 육지와는 또 다른 제주의 장례의식이 석상을 통하여 나타난다. 분묘에 설치된 석상은 망자가 내세에서도 편안하고 외롭지 않은 안식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예를 갖추는 형태로 석상 및 석물들을 배치한다.

이런 석상들은 비석,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과 여러 석물인 산담, 토신단, 석상 및 혼유석, 향로석, 돌잔, 장명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망자 생전의 신분과 재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후세계에서도 수호신과 심부름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것은 주술적인 효과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작된 것이며, 여기에서 손에 든 사물이나 물건을 표현한 지물(持物)은 그 의미를 더 확연하게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방법은 이전의 여러 문헌연구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분묘에 설치된 각 석상과 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기능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조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고증하여 동자석의 조형성을 실질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자석의 조형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동자석의 제작을 통해 제주석재를 이용한 동자석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형태에 따른 신체비례, 표현성, 안면의 조형성으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조형미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안면의 조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자석에서 다른 석상들과 차별화 된 특징 중 하나로, 손에 든 지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동자석의 전통적인 조형성에 대한 미의식을 재인식하고 후손들이 제주 고유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II. 제주 분묘 석상의 형성 배경

### 1. 제주 분묘의 형성

화산섬으로 형성된 제주의 자연환경으로 인한 제주 사람들의 삶은 순응과 도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를 이루고 있는 현무암 돌은 무생물이긴 하나 생물인 인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러한 돌의 양면성을 한라일보 논설실장 강문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제주는 화산섬이다. 먼 옛날 화산분출로 흘러내린 용암은 냇가를 매우고 들녘을 덮었다. 그렇게 덮인 용암이 식어 굳어 되고 암반이 되고 돌덩이가 되었다. 돌은 이 땅에 살았던 제주 인들이 마주쳐야 했던 거센 바람과 왜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돌을 이용해 곡식과 바닷고기를 채취했던 생업의 현장마다 질펀하게 남아 있다. 돌은 곧 삶을 고달프게 하는 시련의 대상인 동시에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다채롭게 하는 자양분이기도 했다.”<sup>1)</sup>

이처럼 자연환경은 사람을 극한 환경에 적응하게 만드는 촉매제였고,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한 제주 사람들의 정신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된 돌 문화는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돌 문화와 죽음은 상반된 관계로 보이지만 제주에서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육지와는 다른 돌과 관련된 독특한 분묘문화의 형성을 살펴보면 산담이 있는 분묘를 비롯하여 석상, 석물들이 제주인의 상·장례의식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본래 죽은 사람의 특별한 매장문화 없이 인적이 드문 냇가에 흘러보냈던 것이 전부였다가 본격적으로 상·장례의식을 도입하게 된 시기는 조선시대 초기로 유교식 상장(喪葬) 제도로 시작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제시를 보면,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약간의 고려시

1) 강문규(2007),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p.78.

대 방묘<sup>2)</sup>를 제외하고는 제주인의 죽음에 관한 문화는 실체가 거의 없는 편이다. 사실 제주의 들녘에는 수많은 묘지가 있지만 대개가 조선시대의 묘지로서 조선시대 예(禮)사상의 영향 아래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당시 변방에까지 미친 조선 성리학의 ‘예사상’은 한반도 전 영역의 통치 구조를 완성하고 타 종교의 탄압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상장의례는 곧 효를 시작으로 층에 이르는 조선 유학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주의 무덤은 대다수가 조선시대 용묘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의 무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3)</sup> 이처럼 계급을 중요시 여기던 조선시대에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무덤의 형태와 크기에 따른 종류를 통해 죽은 자의 생전에 신분과 품계를 구분하였다. “조선시대의 신분 규정은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영원한 굴레와 같은 것으로, 삶에서 억압되었던 신분제도는 죽어서도 무덤의 크기나 석물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sup>4)</sup> 그만큼 분묘 형태로 보여지는 엄격한 신분제도는 생을 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뺏속까지 세습되어야만 했던 냉정하고 혹독했던 사회를 보여 준다.

이런 배경 속에 분묘가 형성되어 예를 갖추면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신앙적인 성격이 묻어난 석상 및 석물들로 분묘를 장식하여 왔는데, 이 또한 재력이 있었던 집안을 보여주는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

2) 조선시대의 묘지는 크게 능묘와 무덤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묘는 능(陵), 원(圓), 묘(墓)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능이란 왕과 왕비, 사후 왕호가 추증된 자의 무덤을 말하며, 원은 왕의 친부모, 왕세자와 그의 비(妃)의 무덤을, 묘는 대군, 공주, 옹주, 후궁 등의 무덤을 말한다. 일반서민 묘지는 용묘(龍墓)를 말하는 것으로서 묘의 머리부분에 꼬리처럼 끝이 달려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무덤 형태인 것이다. 고려시대의 토광묘는 방묘(方墓)가 중심이며, 원묘는 조선 초기까지 이어오다 조선중기부터 용묘가 일반적인 봉분이 되었다. 그렇지만, 제주에서는 조선 초기에도 방묘가 나타나며, 원묘 또한 간혹 조선 중기까지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제주에는 약간의 고려시대 무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묘는 문경공(文敬公) 고조기(高兆基)묘, 제주에 입향한 경주김씨 입도조 묘지 등이며, 무척 보기 드문 묘지 형태인 원묘는 통훈대부(通訓大夫) 고이지(高以智)의 무덤이다. 용묘로는 현마공신인 김만일의 묘를 들 수 있다.

3) 김유선·손명철(2007),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p.44.

4) 상계서, p.64~65.

## 2. 제주 분묘 석상의 종류

유학의 형성으로 유교식 분묘문화는 생전과 같은 예우를 죽어서도 갖추게 되면서 돌도 그 문화의 하나로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

“제주의 돌 문화를 크게 삶의 문화로서의 돌 문화와 죽음의 돌문화로 나누어 보면, 보다 삶의 문화 속에서 죽음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는 언젠가는 거쳐야 할 죽음에 이르는 경로에서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sup>5)</sup> 제주의 돌 문화는 삶의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종착점인 죽음에 관한 것이다. 죽음을 묻어두는 분묘가 형성되면서 분묘의 돌 문화를 보여주는 석인상이 출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분묘 석인상은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8세기경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다. 무덤의 주위에 문·무인석이나 돌 짐승, 12지신상을 세우는 풍습은 중국의 전한시대(기원전 206년~서기 24년)부터 비롯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후 고려시대에는 불교미술에 밀려 분묘치장이 단조로워지고 조각 수법 또한 매우 단출하고 왜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sup>6)</sup>

조선시대 이후로 분묘와 석인상이 함께 조성되는데 “조선 중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된 집안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분묘 석인상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점차 많은 분묘에서 석상들이 설치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sup>7)</sup>

즉, 분묘에 설치된 석상은 망자에게 장례의 예를 갖추는 형태로 석상 및 석물들을 꾸미는 것으로, 석상들은 후손들이 공을 들여 집안의 재력에 따라 다양하게 꾸며진다. 대체적인 종류로 비석,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 여러 기타 석물들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석상 종류마다 의미, 기능, 표현양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김유진·손명철(2007), 전게서, p.87.

6) 이창훈(2008), “특집3-위기의 향토유산 제주동자석 제14호”, 제주문화원, p.119.

7) 상게서, p.119.



## 1) 비석 (碑石)

산담(들담)을 넘어 분묘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석상인 비석은 일반적인 분묘에 설치하는 기념비로 “죽은 사람의 이름과 행적, 가계, 묻힌 장소 및 세운 연도 등을 기록하여 묘역에 세운 돌이며, 진한시대부터 시작되었다.”<sup>8)</sup>

육지와 제주도 비석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육지의 비석 형태는 기둥의 덮개 형태에 따라 이름을 부르고, 비의 종류에 따라 그 신분별 쓰임새가 다르다.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석은 끝이 각진 말각형(末角形), 반원형의 월두형(月頭形), 팔작지붕형<sup>9)</sup>이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제주도의 분묘에서는 월두형의 비석모양이 많은 편이었다.

<그림 1>처럼 “제주 비석에는 간혹 문양이 새겨져 있긴 하지만 세련미 보다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고 조각 기법도 음각으로 새겨진 것들이 많다.”<sup>10)</sup> 이들 문양들은 입체적이고 화려한 육지의 문양에 비해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비석문양



<그림 2> 거북이 대석



<그림 2>에서 보듯이 받침대에는, 즉 “대석에는 직사각형의 모양과 거북이 모양의 귀부(龜趺)를 받침대로 쓴다.”<sup>11)</sup> 대석의 형태 중 하나인 “거북이 형상은 북쪽을 수호하는 의미와 머리, 꼬리, 양손, 양발을 껍데기 속에 감추어 집의 구실을

8) 정경주(2000), 「한국고전 의례 상식」, 신지서원, p.359~366.

9) 김유정(2006), 「문화북제주-제주의 무덤석물」, 북제주문화원, p.21.

10) 상계서, p.21.

11) 상계서, p.22

함으로써 힘, 인내, 영원을 나타내는 상징을 갖고 있다.”<sup>12)</sup>

비석에 사용하는 암석으로는 조면암<sup>13)</sup>이 대부분이다. 현무암은 기공이 많기 때문에 세부묘사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면암은 풍화에 약하여 비문이 빨리 훼손되지만 조적이 세밀하여 글자를 새기기에는 알맞기는 하지만, 생산지가 제한되어 있고 석재가 귀하므로 받침대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 대석으로 사용되는 암석으로는 사각형의 대석은 주로 현무암이 많이 사용되며 용암석, 다음으로 조면암을 사용하는데 거의 드문 편이다. 거북이 형상의 대석은 주로 용암석이 많이 사용되는데 용암석은 현무암에 비해 형상을 새기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sup>14)</sup> 비석을 제작한 조면암과 용암석으로 사용된 것은 당시에 귀한 석재로, 대석의 동물 형태까지 갖춘 석상은 분묘 주인인 망자가 그 당시 재력이 있었던 신분을 말해주고 있다.

## 2) 동자석 (童子石)

동자석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형상을 돌로 제작하여 무덤 앞에 세워진 석상을 말한다. 동자석의 유래를 보자면 “16세기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동자석의 출현으로 18세기 전반에 사라진다. 동자석의 역할에 있어 불교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리학의 정착으로 인하여 조상에 대한 제사 등이 강조되면서 묘역에 심부름 역할을 하는 석상의 필요성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5)</sup>고 추측하고 있다.

이런 시기적인 석상문화의 유래가 여러 설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석상문화의 유래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북방민족의 기원설을 제시할 수 있다.

12) 윤열수(1995),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p.321.

13) 현무암은 사장석과 보통회석을 주로 하는 세립의 화성암으로 현재는 생성시대에 관계없이 화학조성상 심성암인 반려암에 상당하는 것이다. 조면암은 화학조성으로 보아 섬강암에 해당하는 화산암으로 연한 청록색이나 회색을 띠지만 쉽게 풍화하여 황갈색이나 회백색으로 변한다. 석영조면암보다 다소 규산이 적고, 알칼리가 많다. 용암이나 암맥을 이루어 산출된다.

14) 김유정(2006), 전계서, p.21.

15) 김우림(2001), “용인지역 분묘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p.24.



그 제시를 보면 북방민족문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시베리아에 위치한 뚜바지역<sup>16)</sup>으로 “시베리아 제민족 가운데에서도 원주민의 비율이 러시아내 여타 공화국 및 자치주에 비해 높고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대륙 중심에 자리 잡고 으며, 13~14세기에는 몽골인들이 뚜바로 이주하여 토착민과 서서히 동화되어, 중앙아시아의 몽골 인종은 이때 이주한 몽골의 영향을 받아 뚜바 지역의 민족이 언어적으로는 돌궐계, 문화적으로는 몽골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그림 3> 뚜바지역의 석인상



국립민속박물관(2004·2005), 중앙아시아 유목민 뚜바인·삶과 문화

16) 총 면적 17만 500km<sup>2</sup> 면적의 뚜바공화국은 남동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다. 공화국 수도는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상징을 뜻하는 오빌리스크가 위치하고 있는 끼질이란 곳이다. 뚜바는 남동쪽으로는 몽골과 동쪽으로는 부리야트 공화국과 북동쪽으로는 이르쿠츠크 주와 서쪽으로는 알타이 공화국과 북서쪽으로는 하카스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뚜바지역에서는 다양한 종족들과 국가들이 존재해왔다. 또한 이들은 아시아대륙의 여러 유목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뚜바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주거지와 성채, 고대의 관개농업, 고대 몽골어와 티베트어로 쓰인 톨 문자 비문이 유명하다. 현대 뚜바의 역사는 러시아의 유럽문명과 연관되어 있다. 1914년 2월 16일 니콜라이 2세는 공식문서에 뚜바민족은 러시아제국의 보호에 들어간다는 양측 합의문을 선언하여 뚜바는 동시베리아 지역의 이르쿠츠크 주에 포함되었다.

17) 국립민속박물관(2004), 전제서, p.7~9.

또한 “뚜바 지역 내에 돌궐 제2제국<sup>18)</sup>은 민족자주의 정체성 확보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의 공식문서에 이전의 소구드(Sogud)문자가 아닌 돌궐만의 문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뚜바 지역에는 석인상이나 비문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돌궐계 민족은 돌궐만이 아니라 후대의 위구르나 그 서방에 위치한 폴롭츠인 등 모두 석인상을 만드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돌궐시대의 문자가 새겨진 석인상이나 비문들은 이 지역을 공략하거나 통치했던 돌궐 장군들을 기념하여 만든 가능성이 크다.”<sup>19)</sup>

여기서 제시하고 있듯이, 뚜바의 석인상은 업적을 남긴 사람의 형상을 남기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한국은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고, 돌궐 제2공화국에서는 장군들의 기념비로 지위가 높던 신분에 한해서 제작되었음은 동자석의 의미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석상문화는 육지 중부지방에 번창하였던 목신상(木身像)이 점차 남도와 제주도를 내려가면서 재료가 석상으로 변천된 것이지만, 표현양식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계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0)</sup>

<그림 4> 동자석



전주이씨묘 (全州李氏之墓)

육지의 동자석이나 망주석, 문인석의 석상은 표현기법에 있어 경직되고 형식화된 성향이 드러난다. 반면 제주도의 동자석은 <그림 4>처럼 대부분 제주석재인

18) 542년부터 등장한 돌궐은 정령(靛靑)계 민족에 속하는 부족으로 그 원주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최초의 거주지(흉노시대)는 견곤(堅昆) 부족의 인근인 예니세이 강의 상류일대로 간주되고 있으며 4c말~5c초 알타이산의 서남쪽 즉카라-이르티쉬 강과 우룽구 강사이의 지대로 이동해온 것으로 보인다. 돌궐은 역사적으로 제1제국(555~630)과 제2제국(682~745)으로 나누어진다.

19) 국립민속박물관(2005), 「중앙아시아 유목민 뚜바인의 삶과 문화」, p.73~77.

20) 양리가(1998), “제주도 동자석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p.113.

현무암으로 제작 되었다. 다공질이 특징인 현무암은 세밀한 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의 자연환경이 묻어나 단순하면서도 생략적인 제주의 조형미로 표현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형상은 제주의 돌하르방보다 육지부의 장승 벽수와 더 유사하지만 동자석에서 가장 제주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꾸밈보다는 현무암이라는 돌의 성질을 이용하여 음각과 양각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동자석에서 단순함의 조형미를 보게 된다. 정교하지는 않지만 과감한 생략기법으로 제작된 동자석에서 더 나아가 가장 서민적인 조각양식을 보게 되는 것이다.”<sup>21)</sup>

동자석의 형태로 인체의 하체부분은 생략이 되고 머리, 가슴, 팔, 배까지 상체만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다. 상체를 표현하는데 있어 “특히 얼굴 부분이 전체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계란형의 얼굴모양인데 하나같이 웃을 듯 말 듯 하거나 무표정하게 표현된다. 무섭다거나 근엄한 얼굴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코와 손을 양각으로 부각시킨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음각으로 눈이나 입 등에 포인트를 두어 선명하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해 버리는 경향”<sup>22)</sup>처럼 제주만의 생략과 단순한 조형으로 수공하였다.

또한 “배치한 장소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 육지의 석장승의 경우, 기능에 따라서 이름이 구별되고 명문과 생김새, 서있는 위치도 달라지지만, 민중의 염원을 하늘에 연결시켜주는 사제자로서 수호신상인 기능”<sup>23)</sup>을 한다. 반면 제주의 동자석은 배치에 따른 기능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묘에 주인인 망혼의 동반자로서 무속신앙적인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 기능은 동자석의 또 다른 조형미를 보여주는 다양한 지물로 표현되는데 그 기능도 다양하며 다음과 같다. 지물은 망자의 생존 당시 권위나 명예, 지위를 의미하며 또한 망자의 심부름꾼 역할을 징표하는 지물의 모습, 유교의 영향으로 망자의 혼을 위로하는 모습 등으로 표현되어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21) 강정호(2000), 「화산섬, 돌 이야기」, 도서출판 각, p.74~76.

22) 상계서, p.74~76.

23) 김원용(2003), “한국 장승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조선시대 석장승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조각과 조각전공, p.14~19.

### 3) 문인석 (文人石)

문인석은 생전에 학문에 정진했던 학자로 관복을 입고 가슴에 홀을 권 형상을 돌로 재현한, 수호신적인 성격의 석상이다. “엄숙하고 장중한 무게의 힘을 표현하는 문인석의 성격상, 인체미의 표현보다는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작되었다.”<sup>24)</sup> 제주도의 문인석은 암석의 특성상 육지 문인석처럼 세부적인 묘사로 장중하고 화려한 관복의 표현은 볼 수 없지만 확연히 다른 표현기법이 드러난다.

“육지 문인석인 경우에 보통 재질은 화강암이며 머리 위는 낮고 간결한 관모를 쓰고 있고, 두 손에는 홀을 들고 있으며 코와 눈썹을 얇게 조각하고 눈과 입은 거의 선을 굵듯이 조각되어 있다. 또한, 평상시에 입는 공복, 복두를 쓰고 홀을 든 복두공복형 문인석과 조정에 나가 축하나 예를 차릴 때 입는 조복과 금관을 쓰고 홀을 든 금관조복형 문인석으로 나뉘는”<sup>25)</sup>형상에서 그 시대의 복식을 세밀하게 표현한 다양한 장식과 양식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

<그림 5> 문인석



인터넷, [dongja.jejudi.go.kr](http://dongja.jejudi.go.kr)

반면에 <그림 5>처럼 제주도의 문인석은 동자석과 마찬가지로 제주석재로 표현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보여준다. 육지처럼 장식적인 표현보다는 최대한 배제하거나 단순한 관복의 형태만을 재현하였다. 변천되는 화려한 의복 장식 대신에 머리에 2단으로 나뉜 복두를 쓴 것을 강조하여 학자의 형상만을 가늠하게끔 표현

24) 용인시·용인문화원(2001), “용인의 분묘문화”, 용인시사편찬위원회·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p.502.

25) 이재목(2008), “朝鮮時代 楚安山 墳墓群의 金石文 研究”,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 대학원, p.30~31.

하였고, 가슴이나 배에 손을 모아 흘 등을 들고 있는 게 전부이다.

#### 4) 망주석 (望柱石)

산담(돌담) 밖 멀리서 돌기둥이 보이면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 수 있고, 무덤 주위에는 동자석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돌기둥을 보고 분묘를 찾게끔 인도해주는 “망주석은 무덤 앞에 놓은 한 쌍의 8각 돌기둥으로 망두석(望頭石), 망주석표(望柱石表), 화표주(華表石)라고도 한다. 무덤의 시설 형식은 묘주의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데,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앙과 기념적인 기능을 가진 석조물”<sup>26)</sup>로 멀리서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표지, 망혼이 망주석을 보고 제 무덤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문패역할을 한다.

망주석 또한 제주석재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육지 망주석의 주재료인 화강암의 재료와 형식자체에서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볼 수 있다.

육지 망주석의 경우, 세부적인 표현양식을 「국조오례의」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였다. “능원에 설치되는 망주석은 크게 기둥부분과 대석으로 나뉘어 있다. 기둥의 길이는 모두 219cm이며, 아랫부분 21cm정도는 돌레를 깎아내 대석의 팬 곳에 세우도록 되어 있다. 기둥의 윗부분의 둥근 머리를 만들고 그 아래 39cm가량은 둥글게 하여, 그 부분에는 구름무늬 운각을, 아랫부분에 염의를 새긴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구멍을 뚫고, 나머지는 팔각으로 깎는다. 대석은 위층의 아랫부분에 양연엽을, 아래층의 윗부분에는 복연엽을 새기며, 아랫부분에는 운족(雲足)을 새긴다. 전체 대석의 위층이나 아래층 허리는 모두 팔각으로 하며, 그 아래 30cm는 땅 속에 묻는다. 그리하여 망주석의 총 길이는 모두 300cm내외”<sup>27)</sup>에서 규범적인 형식 안에서 제작이 된다.

26)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27) 한국.법제처(1981), 「국조오례의 3」, 법제처, p.77.



<그림 6> 망주석



<그림 7> 망주석



<그림 8> 망주석



<그림 9> 망주석



제주도 망주석의 세부적인 표현양식을 미술평론가 김유정은 “다공질 현무암과 조면질 현무암, 용암석 등으로 만들어지며 형태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sup>28)</sup>고 전하고 있다. 논자가 조사했던 망주석의 높이는 대략 1m50cm이내로, 제일 작은 높이의 망주석은 1m11cm, 제일 큰 크기의 높이는 1m45cm 정도였다. “기둥머리는 연꽃 봉우리, 종(鐘), 젓가슴, 남성성기 모양 등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들로, <그림 6>을 확대한 <그림 7>에서 보듯이 원래 연꽃봉우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모방 변형된 것으로 종 형태나 유방 형태로 되어있어 제주식 망주석의 전형이 된 것들이다.”<sup>29)</sup> <그림 8>, <그림 9>처럼 “기둥머리는 모자를 씌운 것 같이 분리되어 제작된 경우가 많고 기둥 형태는 8각형, 원형, 6각형, 4각형이며 육지 망주석의 표현양식에서 보이는 세호나 쥐는 생략되었다. 육지의 망주석보다는 형식이 없는 단순한 것이 특징인데 이 또한 재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sup>30)</sup> 망주석이 있는 경우에는 동자석이나 문·무인석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석인상이 반출되어 망주석만 있는 경우도 많았다.

## 5) 기타 석물

제주 분묘에 설치된 산담(돌담), 토신단(土神壇), 상석(床石) 및 혼유석(魂遊石), 향로석(香爐石), 돌잔, 장명등(長明燈)은 묘제를 위한 석물들로 “죽음의 돌 문화로서 제주인의 생사관과 공간개념, 조형성을 엿볼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적 산물”<sup>31)</sup>이다. 인간의 죽음과도 결부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된 석물들은 석물

28) 김유정(2006), 전계서, p.20.

29) 김유정(2006), 전계서, p.20.

30) 김유정(2006), 전계서, p.20.

31) 김유진·손명철(2007), 전계서, p.88.

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능으로 제주인들이 조상에 대한 예우를 묘제의식을 통해 볼 수 있다.

### (1) 산담(돌담)

<그림 10> 산담



이창훈(2007), 이창훈사진집

산담은 제주 분묘문화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가장 먼저 보여주는데, 제주방언으로 산담이라 부른다. 무덤주변을 돌로 원형이나 사각형의 형태로 담을 쌓은 것을 말하며, “제주 사람들의 생사관의 응집체라고 할 수 있다. 밭이나 목장이 산 자들의 생활영역이라면 산담은 어디에 있든,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서 사자(死者)들의 공간이고, 무덤을 보호하기 위한 돌담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산담은 신성한 돌담, 이승과 저승의 경계지대로 제주인의 생사관과 공간개념, 조형성을 엿볼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적 산물인 것이다. 나아가 제주인의 상·장례의식의 축조물로서”<sup>32)</sup>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준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 (2) 토신단 (土神壇)

<그림 11> 토신단



이창훈(2007), 이창훈사진집

토신단은 제주인의 주술적인 신앙에 대한 영향이 빚어낸 석물이다. 분묘의 땅 주인인 토지신에게 제를 올리는 제단으로 “무덤에서 가장 중요한 제단이다. 무덤

32) 김유진·손명철(2007), 전게서, p.88.

을 바라보며 배례하는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무덤 후면 오른쪽 산담 구석에 작은 사각형의 제단으로 묘지를 찾아 제례를 올릴 때 제일 먼저 간단한 제물과 토지신축을 차려 제를 지내야 그 다음에 조상 제례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토신단 대신에 정자관을 쓴 토지신상이 있기도 하다.”<sup>33)</sup> 토신단은 보기 드문 석물이고 토신단 대신에 토지신상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경우이다.

### (3) 상석(床石) 및 혼유석(魂遊石)

<그림 12> 상석 및 혼유석



김유정(2003),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분묘에서 대체로 흔히 볼 수 있는 석상과 드물게 보이는 혼유석이 있다. <그림 12>에서는 돌잔이 만들어진 제단 뒤에 사각형 형태가 상석이다. “상석은 봉분 앞에 넓은 현무암이나 조면암으로 된 사각 판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물을 차려 영혼을 대접하기 위한 상(床)이다.”<sup>34)</sup> 흔히 설날, 추석, 중요한 기념일 때 먼저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위해 제물을 차릴 때 사용되는 제단이다. 봉분 앞에 비석 다음으로 상석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이다.

상석과 비슷한 형태로 혼동하기 쉬운 혼유석은 상석 앞이나 뒤로 배치되고, 제주도 분묘에서는 보기 드문 석물로 사진자료를 찾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혼유석의 기능은 “육지에서 17세기 이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묘제를 행할 때 위패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위패 대신 축문을 읽는 영혼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sup>35)</sup> 혼유석과 상석을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김유정(2006), 전계서, p.22.

34) 김유진·손명철(2007), 전계서, p.128.

35) 정해득(2009), “조선시대 경기지역 묘제석물 연구”, 한신대학교, p.81.



상석과 혼유석의 설치함에 따라 신분을 알 수 있는데 “왕릉을 제외한 대군·군·공주·옹주, 일반 선비나 서민의 묘에는 혼유석보다 규모가 작은 상석을 세웠다”<sup>36)</sup>고 말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에서는 상석에 비해 혼유석이 드물게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선비나 서민이 많았기 때문에 혼유석보다는 상석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향로석 (香爐石)

<그림 13> 향로석



인터넷, 네이버백과사전

<그림 13>의 제주 향로석은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육지의 향로석을 참고하였는데 형태가 제주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향로석은 혼유석이 설치되면서 “상석 앞이나 뒤에 놓이게 되는데 향로를 놓기 위한 석물로, 묘제 때 축문을 읽고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향을 태워 연기를 피운다.”<sup>37)</sup> 향로석도 제주석인 현무암으로 제작이 되었다.

#### (6) 돌잔

<그림 14> 돌잔



이창훈(2007), 이창훈사진집

돌잔이란 석물은 육지 분묘에서는 볼 수 없는 제주 무덤 석물 중 하나이다. “제

36) 박정근 외8명(2004), 「한국의 석조문화」, 다른세상, p.404.

37) 정해득(2009), 전계서, p.81.

주의 무덤 석물 가운데에서도 독특하게 돌로 만든 돌잔으로, 18~19세기에 조성된 무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대개 상석 바로 밑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석 가운데 붙어 있는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돌잔은 상석을 만들 때 함께 만드는데 4각형의 판석 위에 두 개의 돌잔이 한 몸으로 붙어 있게 제작되고, 석재는 주로 조면암재나 용암석으로 만들어진다.”<sup>38)</sup> 현무암은 기공이 많아 물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술을 담아 두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적당한 시간동안 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잔이라는 용도에 맞게 현무암보다는 조면암이나 용암석으로 제작된 것이다.

### (7) 장명등 (長明燈)

<그림 15> 장명등



인터넷, 네이버백과사전

장명등은 제주도 분묘에서는 보기 드문 석물 중 하나로,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밝게 인도한다든가 불을 밝힘으로서 사악한 잡기를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을 지니는 석물이다. 장명등의 양식에는 사각형태와 팔각형태로 구분한다.”<sup>39)</sup>

위에 첨부된 사진은 제주도의 장명등이 아닌 육지의 것으로, 제주도의 문헌자료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보기 드문 석물이다. “고려 후기 공민왕의 현릉에 장명등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조선시대에는 왕릉에 반드시 세우는 석물로 널리 퍼졌다. 왕릉뿐 아니라 재상의 무덤에도 장명등을 세우긴 했지만 신분에 제한을 두어 일품재상의 무덤에만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sup>40)</sup> 비교적 높은 품계에서 드물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장명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록이 다른 석물에 비해 현저한 차

38) 김유정(2006), 전계서, p.23.

39) 이재복(2008), 전계서, p.22.

40) 박정근 외8명(2004), 전계서, p.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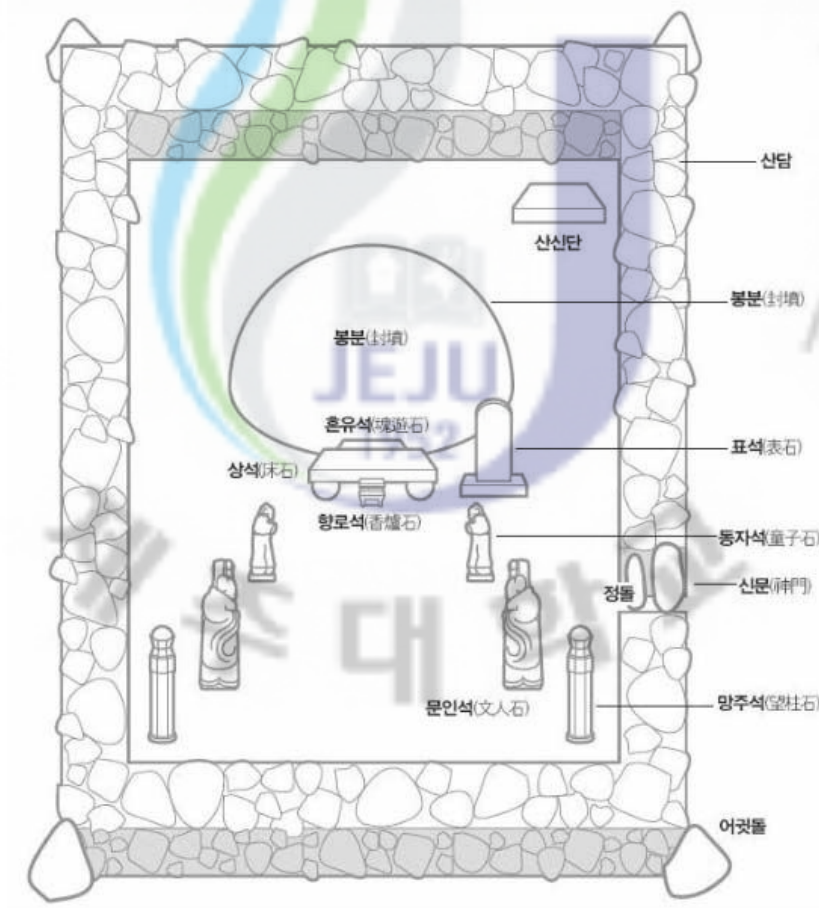
이를 보인다.

앞서 제주도에 석상과 석물의 특징을 보았던 것처럼 제주도의 장명등 또한 제주석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 기둥은 덜 화려하고 무늬보다는 간략한 형태인 장명등의 모습을 하고 있다.

### 3. 석상의 배치

산담이 조성된 안은 봉분을 중심으로 봉분 뒤로는 토신단, 봉분 앞으로는 비석(표석-대석), 상석 및 혼유석, 향로석, 좌우로 배치되는 동자석 2기, 문·무인석 2기, 망주석 2기, 장명등이 배치된다.

<그림 16> 조선시대 분묘 석상 및 석물 배치도



인터넷, [dongja.jejudongja.go.kr](http://dongja.jejudongja.go.kr)

### Ⅲ. 동자석의 형성 및 조형성 분석

#### 1. 동자석의 형성

예로부터 제주도는 “한라산을 가운데를 두고 크게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한 산남과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산북으로 나뉘어져 왔다. 산남과 산북은 해발1950m의 한라산이 가로막고 있어 자연스럽게 지리적인 단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풍토와 생활풍습이 사뭇 달랐다.”<sup>41)</sup>

이러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생활환경 속에 석상문화도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 대표적인 석상 중에서도 돌하르방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세 고을”<sup>42)</sup>의 지역별 암절이나 표현에 특징이 석상에 드러나 있다. 이처럼 돌하르방에 나타나는 지역별 특징을 감안하여 동자석에 지역별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자석이 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미술평론가 김유정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출발하여 발흥기로 15세기~17세기로 성리학의 전파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시기이고, 동자석이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부터 18세기~19세기까지로 보았다. 이 시기의 동자석은 형태가 다양하고 양식적으로 제주적인 형상이 정착화 되며 수준 높은 동자석이 가장 많이 제작된 시기이다. 쇠퇴기는 20세기~1970년까지로 동자석의 양식도 점차 각주형이거나 표현이 조약해지기 시작하고, 1970년 이후로서 기계가 등장하면서 정형화된 양식으로 굳어져, 동자석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한 소멸기로 접어들었다”<sup>43)</sup>고 설명하고 있다.

41) 인터넷, galleryharu cafe

42) 1416년(태종 16)에 제주 안에서 삼읍(제주목·정의현·대정현)으로 나누어 진 후, 1914년에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 500여 년간 제주는 삼읍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이 세 개의 고을 중심으로 각각 생활 단위로 경제권, 생활권, 혼인권 등이 기본적으로 행해졌다.

43) 김유정(2003),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p.70~71.



동자석이란 석상이 도입되면서 주재료로 제주도의 화산암, 즉 현무암, 조면현무암<sup>44)</sup>, 현무암질 조면안산암, 조면안산암, 조면암이 사용되었다. 현무암의 표면은 작은 기공이 많고, 조면현무암, 현무암질 조면안산암, 조면안산암, 조면암은 점성이 높으며 좁고 긴 구릉의 형태로 분포<sup>45)</sup>되었는데 이런 화산암을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육지의 동자석과 제주도의 동자석 형태는 재료의 차이로 인해 표현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7> 현무암



인터넷, 두산백과사전

육지의 경우 화강암이나 대리석을 사용한 석상이 대부분이며, 화강암이나 대리석은 입자가 세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세부 묘사하기에 적합한 암석이다. 이런 암석을 사용한 육지의 동자석은 “머리모양이 양쪽에 쌍상투를 튼 모습과 의복, 몸체의 세밀한 표현을 한 반면, 제주의 동자석들은 민머리형이나 땡기형, 변발형, 쪽진 머리형의 두상 표현만이 강조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지부의 석상들보다 훨씬 간결하고 특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과감함을 엿볼 수 있다.”<sup>46)</sup>

이는 제주석재인 현무암으로 동자석을 제작하는데 주재료로 사용되었고, 현무암의 특성상 조직이 단단하지 않아 부서지기 쉽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자석의 표현을 생략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제작된 제주 동자석만의 독창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44) 조면현무암은 짙은 회색이거나 짙은 청록색이며, 세립의 치밀한 암석이다. 현무암과 조면암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반상조직이면서 완전질(完晶質)인 것이 많다. 조면안산암은 안산암과 조면암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암석으로 라타이트라고도 한다. 용암 또는 작은 관입암체로 산출된다.

45)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2003), “제주도지질여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p.25-26.

46) 이창훈(2008), 전계서, p.123.

<표 1> 제주 동자석의 암질별 분포 현황

석상 종류	암질	석상 개수	합계	비율
동 자 석	현무암	319	494	64.6%
	용암석	86		17.4%
	조면암	89		18.0%
문 인 석	현무암	90	118	76.3%
	용암석	18		15.5%
	조면암	10		8.5%
망 주 석	현무암	105	137	76.6%
	용암석	16		11.7%
	조면암	16		11.7%

이창훈, 인터넷 dongja.jejusi.go.kr

<표 1>을 통한 암질별 분포 현황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시 지역에 분포하는 석상들은 현무암으로 제작된 석상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분포 비율이 3배 이상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용암석과 조면암을 이용하여 제작된 석상은 각각 18%로,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이외에도 도표를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알 수 있는 제주 동자석은 “제주시의 서부지역보다 동부지역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현무암 석상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 지역은 현무암 석상의 분포가 많기는 하지만 용암 석상들 또한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분묘 석물 중 망주석의 경우도 현무암 석물이 대부분이고, 용암과 조면암 석물도 분포하고 있었다.”<sup>48)</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로, 제작된 동자석의 암석 종류는 동자석이 발굴되었던 그 주변에서 채취할 수 있는 암석과 거의 동일시 된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여러 종류 암석의 동자석이 조금씩 분포된 것은 산북과 산남의 교류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암석으로도 제작하였음을 당시에 교류가 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7) 인터넷 dongja.jejusi.co.kr

48) 인터넷 dongja.jejusi.co.kr

## 2. 동자석의 형태에 따른 분류

의인화된 석조물들, 예를 들면 돌하르방, 문인석 등에 비해 동자석의 경우 유난히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비례를 나타내 보이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였다. 동자석 형태에 따라 신체비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동자석의 표현성, 상체 중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얼굴에 표현된 안면의 조형성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 1) 동자석 형태에 따른 신체비례

다른 석상들과 마찬가지로 동자석도 인간의 실제모습과 달리 제작되어 왔다. 또한 동자석은 주술적인 영향으로 분묘주변에 배치함으로써 망자를 수호한다는 기능이나, 심부름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이 되었다. 동자석의 안면표정이나 손에 든 지물을 통해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체까지 표현된 형태보다 상체까지만 표현된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상체에서도 얼굴이 차지하는 비례는 3:1 또는 2:1 정도이고, 동자석 크기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그림 18> 3:1의 신체비례



<그림 19> 2:1의 신체비례



## 2) 동자석 형태에 따른 표현성

동자석은 제주의 화산암으로 제작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듯이, 화산암이라는 한계의 소재를 사용하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된 제주만의 동자석이라 할 수 있다. 제주 동자석의 특징은 단순함, 즉 생략적인 것 외에 다른 큰 특징으로 정면성을 말할 수 있다.

측면이나 후면에서의 표현보다는 정면위주의 표현으로 집중되었다. 정면의 얼굴, 코, 입을 단순하게 양각이나 음각으로 표현되고, 정면의 몸통은 옷의 주름을 표현하기 보다는 손가락을 표현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양각이나 음각으로 표현하였다. 측면은 귀와 팔의 부분을 표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역시 세밀 묘사 보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하였다.

후면에는 머리카락의 형태로 땃기머리를 표현해줌으로써 동자석이라는 석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다. 동자석과 비슷한 형상의 인석이라는 석상이 있는데 인석은 “귀밑머리를 풀고 땃아 올리거나, 탕건이나 병거지를 쓰고 있는”<sup>49)</sup> 반면에 동자석은 반드시 땃기머리를 하고 있어야만 동자석이라는 석상으로 구분된다. 땃기머리를 표현하는데 있어 귀 뒤로 넘겨 땃거나, 어깨에서부터 내려와 땃기머리가 시작되는 경우로 양각이나 음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동자석 형태에 따른 특징들을 지역별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동자석의 다양한 표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9) 고평민(2007),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p.63.



<그림 20> 통정대부 대정현감고공지묘 (政大夫大 靜縣監高公之墓)-오라동1



동자석(쌍)	높이	폭	머리	몸통
정면(cm)	44	22	20	24
측면(cm)	44	19	17	19

<그림 20>의 동자석은 현무암으로 제작된 것들 중에서 시기적으로 오래되어 보이는 것으로 비석의 대석은 거북이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머리는 원형, 몸통은 사각형 도형으로 보이고 있다.

정면에서의 세부적 표현을 보면, 양각으로 표현된 눈과 손상된 코, 입은 일자로 사각형모양이 새겨져 있다.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은 사각형의 선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문자의 형태로 추정된다.

측면에서 바라본 표현은 C자형 귀, 팔 모양으로 ㄷ자가 위로 향한 형태이다.

후면에서의 표현은 귀 뒤로 넘긴 땀기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 안에 X자가 선각으로 표현 되었다.

<그림 21> 전주이씨지묘 (全州李氏之墓)-오라동2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58	22	24	33
측 면(cm)	58	22	21	22

<그림 21>의 동자석은 조면암질 현무암으로 제작되었고, 전신의 비례 면에서 볼 때 몸통보다는 머리 부분을 강조 하고 있다.

정면의 전체적인 형태는 달걀형의 얼굴과 눈과 코는 양각으로, 음각으로 표현된 입은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지물을 든 손은 손가락이 표현되었고, 잔 형태의 지물을 들고 있다.

측면에서의 귀는 특이하게 반원이 비뚤어지게 누워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팔은 희미하게 음각으로 V자형으로 새겨졌다.

후면에서는 양각으로 땀기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표현하였다.

<그림 22> 000홍공종훈지묘 배후인 김해김씨 (000洪公種勳之墓 )-오라동3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68	30.5	26	44
측 면(cm)	68	20	19	20

<그림 22>의 동자석은 전체적으로 도형형태로 원형의 머리 부분과 사각형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다른 동자석과 비슷한 형식이지만 돌출된 코가 이마에서부터 뽕죽하게 두드러진 표현으로 딱딱하고 각진 느낌이 더하다.

정면에서의 눈과 약간의 미소를 짓는 듯한 입은 음각으로 표현되었고, 양각으로 몸통에 옷을 묘사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과 홀을 든 손을 표현하였다.

측면에서의 귀는 C자형으로 안에서 일자로 파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손은 치켜 올려 홀을 들고 있는 ㄷ자 형이다.

후면에서의 땡기머리는 머리 부분과 이어지는 듯하지만, 이는 귀 뒤로 넘긴 땡기머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향대부현공지묘 (鄉大夫玄公之墓)-노형동1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58.5	24	24.5	34
측 면(cm)	58.5	18.5	18	18.5

<그림 23>의 동자석은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순진한 표정을 담은 동자석이다. 전체적으로 도형 형태인 원형의 머리와 사각형의 몸통으로 이루어졌고,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이며 음각으로 표현되었다.

정면에서 바라본 안면의 세부적인 형태를 보면, 눈썹의 표현이 되어있고 눈과 입은 음각, 코는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전 동자석의 손이 가슴에 있음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 23>의 동자석은 손가락도 모두 음각이며 가슴 밑으로 표현되었다.

측면에서의 귀는 역 C자형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안보이게 붙어있고 팔은 L자형이다.

후면에서의 땡기머리는 몸통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음각으로 길게 표현되었다.

<그림 24> 전력부위 조공명남지묘 (展力副尉 曹公命南之墓)-노형동2



동자석(쌍)	높이	폭	머리	몸통
정면(cm)	70	24.5	22	48
측면(cm)	70	21	18	21

<그림 24>는 조면암재로 제작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달걀형의 머리와 사각형의 몸통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동자석에 비해 신장이 긴 편이며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도 특이한 표현이 돋보이는 동자석이다.

정면의 둥그란 눈과 약간의 미소를 짓는 듯한 입은 음각으로 표현되고, 코는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목과 얼굴의 얇은 경계로 턱 선이 표현되었고 목에 V자 형이 새겨졌는데 이는 옷 모양으로 추정된다. 손가락은 모두 양각으로 표현되었고, 손에 든 지물은 주격으로 추정된다.

측면에서 바라본 귀 모양은 C자형 2개 형태와 실제 귀의 이주(耳柱)를 묘사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팔은 ㄴ자인데 위로 치켜 올라가고, 다른 동자석과는 다르게 손목의 굴곡 표현과 손이 넓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후면의 땡기머리도 재미있는 표현이며 몸통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길게 그

러진 사각형 안에 X자가 그려져 땡기머리를 표현하였다.

<그림 25> 배숙부인고씨 통정대부호조OOO (配淑夫人高氏 通政大夫戶曹OOO)-  
용강동1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68.5	24	29	40
측 면(cm)	68.5	22.5	23	22.5

<그림 25>의 동자석은 이전에서 본 <그림 22>의 동자석 석재와 크기, 표현양식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전체적으로 도형 형태인 원형의 머리와 사각형의 몸통으로 되었다. 눈, 입은 음각, 코는 양각으로 되어있고, 마주잡은 두 손에는 홀을 들고 있다.

측면의 귀 모양은 C자형 안에 음각 일자로 새겨지고, 후면에서는 음각으로 곧게 파인 땡기머리를 표현하였다.



<그림 26> 통정대부공지묘 (通政大夫公之墓)-용강동2



동자석(쌍)	높이	폭	머리	몸통
정면(cm)	72	25	23.5	51
측면(cm)	72	22	16	22

<그림 26>의 동자석은 전체적으로 각이 진 얼굴 형태와 사각형의 몸통으로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정면의 얼굴표현은 치켜 올라간 눈의 외곽과 눈동자의 양각표현, 긴 코가 두드러지고, 몸통은 손을 마주잡고 있는 입체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측면의 귀는 매우 큰 C자 형태이며, 팔은 ㄷ자로 위를 향한 모양과 흔히 볼 수 없는 몸통을 두른 옷의 도포 끈이 선각표현으로 된 것이 특이한 점이다.

후면에 귀 뒤로 넘긴 망기머리 또한 머리 윗부분부터 내려오는 입체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림 27> 의인남호문씨 무과제장공신호 (宜人南乎文氏 武科第張公信浩)-명도  
암1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71	21	28	49
측 면(cm)	71	21	19	21

<그림 27>의 동자석은 현무암재로 제작되었고 전체적으로 달걀형의 얼굴형태와 사각형의 몸통으로 되었다.

정면에 달걀형 얼굴에서 나타난 코는 뾰족한 양각 형태이고 얼굴과 목의 경계인 턱의 선을 강조 하고 있다. 또한 목에서 연결되는 의복의 선을 V자형으로 나타내었으며, 주걱을 두 손으로 마주잡고 있는 특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

측면에는 손목의 굴곡과 귀의 C자형 두 개 안에 이주(耳柱)를 표현하였다.

후면에는 네모 안에 X자 표시로 땡기머리를 표현하였다.



<그림 28> 인동장씨 진주강공묘O (仁同張氏 信州康公墓O)-명도암2



동자석(쌍)	높이	폭	머리	몸통
정면(cm)	62	23	30	28
측면(cm)	62	20	26	19

<그림 28>의 동자석은 여러 무덤과 비석이 서로 동떨어진 곳에 배치되었으며 이 동자석은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몸통과 머리의 비율이 같아서 머리가 강조되어 보인다.

정면의 얼굴은 원형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턱 선을 묘사해줌으로써 원형과 달걀형의 중간 형태로 보인다. 코를 제외한 눈, 입, 주걱으로 보이는 지물은 음각으로 표현되었다.

측면의 팔은 양각으로 ㄴ자형으로 표현되었다. 후면에 있는 땡기머리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 아마도 동자석보다는 인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림 29> 훈원판관 호산신공숙지묘 (訓院判官 乎山申公淑之墓)-화북1



동자석(쌍)	높이	폭	머리	몸통
정면(cm)	40	21	24	16
측면(cm)	40	18	17.5	18

<그림 29>의 동자석은 전체적으로 조사했던 다른 동자석에 비해 크기가 가장 작은 편이다. 다공질의 현무암을 석재로 사용한 동자석의 모습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의 형상을 닮은 모습에서 더욱더 두드러진다.

정면의 표현은 눈썹, 입은 음각이고 눈과 코는 양각이지만 코는 일부 손상되었다. 몸통에서 손가락의 지물을 든 손이 표현되었다.

측면의 귀는 몸에 비해 비례가 큰 편으로 C자 형태 안에 이주(耳柱)를 표현하였고, 팔은 ㄴ자 형태이다. 후면에 몸통부터 시작되는 땡기머리가 표현되었다.

<그림 30> 통정대부 평산신공귀종지묘 (通政大夫 乎山申公貴終之墓)-화북2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64	24	27	35
측 면(cm)	64	23	21	23

<그림 30>의 동자석은 전체적으로 각진 곳이 없는 둥근 미륵형으로 콧 망울이 둥글고 귀는 크고, 옷의 깃과 도포 끈이 자세히 표현되었다.

정면의 눈 형태는 돌출 모양으로 눈동자도 표현되었고, 몸통에서의 마주 잡은 손은 입체적으로 조각되었다.

후면은 귀 뒤로 넘긴 땀가 길게 양각으로 표현되었다가 점차 등에서부터 음각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림 31> 거사양공지묘 (居士良工之墓)-대림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53	26	26	26
측 면(cm)	53	18	17	18

<그림 31>의 동자석은 조면암재로 제작되었으며 오래된 초기형태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달걀형 얼굴과 사각형의 몸통으로 되었지만, 간신히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매우 생략적이고 단순하게 제작이 되었다.

달걀형 얼굴에 부리부리한 큰 눈의 양각과 코의 형태는 손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몸통에서의 표현은 지물을 들었는데 동자석 하나는 술잔을, 다른 하나는 술 병으로 추정된다.

측면에는 도포 끈이 선각으로 표현되었다. 후면의 땡기머리는 양각으로 묶음 머리로 표현되었다.

<그림 32> 군위오씨명월파 (軍威吳氏明月派)-명월



동자석(홀)	높이	폭	머리	몸통
정면(cm)	80	28	33	44
측면(cm)	80	25	21	25

<그림 32>의 동자석은 한림 명월파 오씨 종친의 오OO씨 전언으로는 산담을 치우다가 발견한 것으로, 하나만 남아있는 이 동자석은 고성에서 이전하였고, 원래 한 쌍인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에 조사했던 동자석에 비해 무척 크고, 조면암재로 제작되었다.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얼굴과 사각형의 몸통으로 되었다. 분위기는 미륵 형태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눈 외곽과 눈동자는 양각으로 표현되고, 코는 손상이 되어 약간의 보수흔적이 있다. 몸통에서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손을 보면, 둥그런 원형 안에 각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팔의 형태를 후면에서부터 이어지는 옷소매를 곡선으로 드러내는 점이 돋보인다.

후면의 귀 뒤로 넘긴 땡기머리는 가지런히 땡아 묶은 정갈한 모습을 자세히 표현했다.

<그림 33> 군위오씨명월파 (軍威吳氏明月派 )-명월2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57	19	20.5	37
측 면(cm)	57	17	17	17

<그림 33>의 동자석은 한림 금악리 이시돌 목장 부근에서 한림 명월로 이전된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의 얼굴과 사다리꼴의 몸통으로 이뤄졌다.

정면에서의 표현은 양각의 눈 형태가 위로 치켜 올라갔으며, 코는 손상되었고 입은 음각으로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몸통은 경직된 모습으로 각진 옷소매와 네모난 손으로 표현되었다.

측면에는 C자 모양의 귀가 있고, 팔은 ㄷ자로 위를 향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후면에는 어깨 넘어 길게 늘어뜨린 땃기머리가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34> 입도저구세손합묘 (入島祖九世孫合墓)-명월3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42	22	16	26
측 면(cm)	42	18	12.5	18

<그림 34>의 동자석은 조면암재로 제작된 무척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크기의 모습이다. 전체적인 얼굴과 몸통의 형태만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얼굴은 주걱턱으로 강조되었고, 귀는 약간의 둥근 형태만 남아 있다. 몸통에는 마주잡은 손이 표현되었고 후면의 땀기머리는 약간의 볼륨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모습이 간신히 보인다.



<그림 35> 입도저구세손합묘(入島祖九世孫合墓)-명월4



동자석(쌍)	높 이	폭	머 리	몸 통
정 면(cm)	49	26	25	23
측 면(cm)	49	21	21	21

<그림 35>의 동자석은 한림 명월과 오씨 종친의 오OO씨 전언에 의하면 제작된 지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였다. 다공질 현무암으로 제작된 동자석은 제작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어서, 돌하르방의 표현양식처럼 약간의 근엄한 얼굴 표정과 엇갈리게 놓인 손이 돌하르방을 연상케 한다. 양각의 눈, 음각의 코와 입, 지물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C자형 귀 형태로 표현되었고 땡기머리가 X자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동자석의 형태에 따른 표현성을 분석한 결과, 동자석에 나타난 표현의 특징은 공통점을 찾기 힘든 독특하고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돌하르방에서 드러나는 지역별 차이를 동자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주목된다. 동자석을 현장조사 했을 때 여러 석상들도 함께 조사할 수 있었

는데, 동자석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석상들도 정해진 형식 없이 석공의 개성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앞서 이론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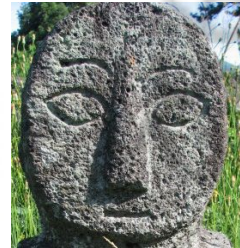
### 3) 동자석 두상에 따른 안면 조형성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두상이 신체 구조에 비해 유난히 크게 나타난 동자석의 특징과 쉽게 채취할 수 있었던 주변의 석재인 화산암의 특성상 이목구비를 정교하게 표현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한 특징에 다시 주목하면서 안면의 세부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얼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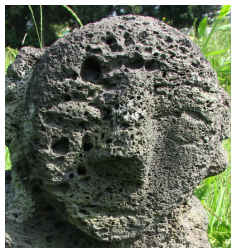
얼굴형이 원형에 가까운 동자석일수록 얼굴과 땡기머리를 음각으로 표현되었고, 몸통에서의 두 손은 한 덩어리로 모아놓은 모습으로 간단하고 단순한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딱딱한 느낌의 경직된 인상을 준다.

<그림 36> 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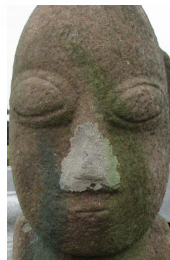
계란형의 얼굴형을 가진 동자석은 사람의 형상을 조금씩 닮게 묘사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원형의 얼굴보다는 손과 팔을 약간 도드라지게 하고, 손가락과 땡기머리도 음각보다는 양각으로 표현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음각보다는 양각의 표현이 많아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

<그림 37> 달걀형



-동자석 중에서 크기도 가장 크고 입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타원원형과 각이 진 얼굴 형태의 동자석이다. 신체 부분을 실제 각도와 형태로 각별히 고려하여 표현한 흔적이 많아 보이는 형태이다. 타원형 얼굴의 동자석은 전체적으로 각이 진 부분이 없이 둥글며 큰 코와 큰 귀까지 부처님의 인상을 닮게 담아냈다. 반면 각이 진 얼굴을 가진 동자석은 타원형의 얼굴을 가진 동자석처럼 입체적이기는 하나,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어 수호역할을 하는 동자석처럼 보인다.

<그림 38> 타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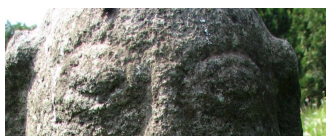
<그림 39> 각이 진형



## (2) 눈

눈은 도드라지게 표현한 양각과 선으로 패인 음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 원형의 얼굴형일수록 음각으로 표현한 형태이지만, 눈은 얼굴 형태와 상관없이 음각으로 표현된 동자석이 많다.

<그림 40> 양각



<그림 41> 음각





### (3) 코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끝이 둥근 형태와 콧등이 뾰족하여 밑에서 올려다보면 삼각형 형태인 코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코끝이 손상된 동자석은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가졌을 때 유산시키기 위해 코끝을 캐내어 달여 먹었다는 속설 때문에 코가 손상된 동자석을 종종 볼 수 있다. 코는 얼굴 형태와 상관없이 뾰족한 코, 둥근 코로 표현되었다.

<그림 42> 둥근 코



<그림 43> 뾰족한 코



<그림 44> 손상된 코



#### (4) 입

입의 표현 역시 얼굴형과 관계없이 대체로 입체적인 양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음각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었다. 입 꼬리가 밑으로 향한 울상 짓는 듯한 표정, 입 꼬리가 위로 향해 미소 짓고 있는 표정, 무표정한 일자 등의 입을 표현하였다.

<그림 45> 음각, 양각 입모양



#### (5) 귀

귀의 형태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귀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원형일수록 <그림 46>, <그림 47>처럼 간단하게 묘사된 타원형 안에 음각이 새겨진 형태와 C자형이 대부분이다. <그림 48>, <그림 49>처럼 C자형 안에 실제 이주(耳珠)를 작은 원 모양으로 표현하여 실제 귀 모양을 묘사하려 하였으며, 특히 달걀형과 타원형의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림 46> 타원형+음각



<그림 47> C자형



<그림 48> C자형+원형모양



<그림 49> C자형 2개+원형모양



## (6) 턱

동자석의 얼굴 형태에 따라 원형, 계란형, 타원형, 각이 진 형에 맞춰 턱을 표현 하였으며 유난히 주걱턱을 강조하여 표현한 특이한 동자석도 있었다.

<그림 50> 주걱턱



### 3. 동자석에 나타난 상징성 분석

인간에게 있어 상징은 “무의식적으로 물건이나 형태를 상징으로 변용시키고 이를 종교나 미술로 표현한다. 즉 상징으로 변용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종교와 예술이 서로 긴밀하게 짜인 역사는 유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남겨 놓은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상징의 기록이다.”<sup>50)</sup>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큰 바램은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으로 곧, 행복한 삶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한 흔적이 주변의 문양이나 사물들에 나타나고 있다.”<sup>51)</sup> 사후세계에서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 사물들의 형상을 지물로 표현하여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옛 석공들은 제한된 형식에서 벗어나 단순한 형태의 다양한 지물들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밥주걱, 손가락, 홀, 창, 술병, 잔 등이 많이 볼 수 있는 지물이다.

이런 여러 지물들은 “후손이 조상을 위해 배려한 내세에서의 안락한 삶을 기원하는 상징, 망자의 지위, 가문의 위상을 드러내며 표현된 지물을 근거로 제주민

50) 카를 구스타프 융(1996), 「인간과 상징」, 주식회사 열린책들, p.357.

51) 윤열수(1995), 전계서, p.316.



의 내세관과 설치목적을 이해”<sup>52)</sup>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지물들은 무기물과 동·식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지물들의 특징을 통해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무기물

무기물은 생명체가 없는 사물로 홀, 손가락(주걱), 무기(창 등) 술병, 술잔, 부채가 새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홀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지물이다. 그 외 문자, 붓 등의 몇 가지 지물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쉽게 조사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연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 (1) 홀

<그림 51> 홀



홀은 직사각형의 긴 모양의 막대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원래 관원들이 왕의 교명을 적어서 잊지 않게 하려는 요즘의 메모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후에는 단순히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다.”<sup>53)</sup> 실제 홀의 형태는 “한 자, 폭은 두 치 정도의 길이로, 대체로 비슷하나 위가 둥글고 아래가 각이 진 것과, 위, 아래 모두 각진 것으로 구별 할 수 있다.”<sup>54)</sup> 제주도 동자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홀의 형태는 위와 아래가 모두 각진 형의 홀이다.

52) 김영익·김민철(2005),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탐라문화연구소, p.10.

53) 주석편(1986), “역주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463~464.

54) 이경순(1996), “조선시대 능묘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61.

## (2) 숭가락(주걱)

<그림 52> 숭가락(주걱)



<그림 53> 숭가락(주걱)



<그림 54> 숭가락(주걱)



미술평론가 김유정은 “숭가락의 지물은 영혼이 식사하는 모습을 상징한다”<sup>55)</sup>고 전한다. 일반적으로 주걱(숭가락)은 네모 형태와 둥근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52>는 주걱(숭가락)이 음각으로 표현되었고, <그림 53>과 <그림 54>는 양각으로 표현된 주걱(숭가락)이다.

## (3) 숭잔, 숭병

<그림 55> 숭잔



<그림 56> 숭잔



<그림 57> 숭병



<그림 55>의 사다리꼴 모양의 잔과 <그림 56>과 <그림 57>은 숭잔과 숭병의 지물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동자석으로 추정한다. 미술평론가 김유정은 “숭잔과 숭병은 영혼을 위해 예를 갖추 제례를 행하거나 시중드는 모습”<sup>56)</sup>이라고 말한다. <그림 56>과 <그림 57>의 표현을 보면, 하나는 두 개의 잔을 받친 받침대까지 묘사된 것과 밑 부분이 타원형의 형태로 보아 숭병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쌍을

55) 김유정(2003), 전계서, p.77.

56) 김유정(2003), 전계서, p.77.

이루고 있다.

#### (4) 무기

<그림 58> 창



인터넷, [dongja.jejusi.go.kr](http://dongja.jejusi.go.kr)

<그림 58>은 창을 표현한 지물로 끝이 뾰족하게 묘사되었고 수호신적인 상징으로 악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창을 비롯한 검, 방패 등 무기는 수호적이고 권력적인 강한 남성적인 상징을 보여주고, 동시에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 (5) 부채

<그림 59> 부채



인터넷, [dongja.jejusi.go.kr](http://dongja.jejusi.go.kr)

언뜻 보았을 때, 삼각형 형태로 잔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삼각형이나 원형 형태 안에 선각으로 빗살무늬로 표시되어 부채를 표현했다.

사후세계에서도 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도구로 부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포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또 다른 부채의 의미를 보면 무(巫)에서 “악귀를 흩어 버리는”<sup>57)</sup>상징과 미술평론가 김유정은 “유교에서 선비들의 권위와 풍모, 여

57) 박정애·서은주(1999), “무신도에 표현된 지물의 상징연구 제4호”, 시각디자인학 연구, p.100.

유로움을 나타내는 풍류가 깃든 도구”<sup>58)</sup>라고 말한다. 무교와 유교에서의 다른 상징을 갖고 있는 부채를 제주대학교 교수 김영익은 “총 2.8%에 불과한 지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를 이룰 수 없는 상황”<sup>59)</sup>이라고 전하고 있다.

## 2) 동·식물

생명체가 있는 유기물로는 동·식물의 새(오리 등), 뱀, 꽃(연꽃)이 지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물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상징을 필요로 한다. 동·식물의 지물은 현장에서 조사되지 않아 지물에 대한 문헌자료를 첨부하여 설명하였다.

### (1) 새

<그림 60> 새(오리)



김영익(2005),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 분석”

<그림 60>처럼 지물로 표현된 새의 종류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새의 생김새로는 머리는 둥글고, 부리와 다리가 짧은 것으로 보아 오리로 추정된다. 오리는 “여러 문화의 신화 속에서 창조주 새로 간주되며, 불멸성을 뜻하는 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원앙새는 부부의 행복과 금슬을 의미한다.”<sup>60)</sup>

지물로 표현된 새가 정확히 오리가 아니어도 조류의 상징은 신에게 제일 가까이 갈수 있는 존재로, 지상과 천상의 영매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58) 김유정(2003), 전계서, p.77.

59) 김영익·김민철(2005), 전계서, p.17.

60)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필립 윌킨스(2010), 21세기북스, p.58.



대부분 알려져 있다.

## (2) 뱀

<그림 61> 뱀



인터넷, [dongja.jeju.go.kr](http://dongja.jeju.go.kr)

동·식물이 새겨진 뱀은 특성상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로 알고 있지만 뱀은 예로부터 “홀로 자족적으로 비밀스럽게 지하 굴에서 살면서 허물을 벗는 지하의 생명체로서 죽은 자의 힘에 접근 할 수 있는 지하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sup>61)</sup>고 한다. 미술학적으로나 제주도의 신화를 통한 뱀은 “농경문화의 상징으로서 재생과 환생, 풍농, 신격을 받들어지는 의미”<sup>62)</sup>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병을 치유하는 기능이 더해져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도 집안의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서의 기능이 으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63)</sup>

곧, 제주 신화 속에서 보여주는 뱀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되는 존재로, 제주 사람들의 민속신앙으로 전해져 오는 업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재생과 부활을 더불어 부를 상징하는 뱀은 “동·서양의 서로 상반되는 상징”<sup>64)</sup>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뱀의 상징적 의미는 동양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61)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필립 월킨스(2010), 전게서, p.67.

62) 신혜금(1999), 「영주어문」, 영주어문학회, p.153.

63) 상계서, p.155.

64) 기독교에서는 이브를 피어 선과 악을 맞보게 하였으며, 그것이 타락의 길임을 뱀이 알고서도 그랬기 때문에 뱀은 속임수와 유혹을 상징한다. 이에 하나님은 뱀을 악마로 여긴다는 저주를 내렸다.



### (3) 꽃

<그림 62> 꽃(연꽃)



김유정(2003),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지물로 표현된 꽃은 자료가 흔하지 않고 <그림 62>에서 처럼 꽃의 형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의 꽃에서 보여지는 신화적인 상징을 설명하자면, “꽃은 자연계에서 꽃들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상상의 꽃이 특히 많다. 상상花로 인간이 회구 하는 삶의 모습이나 혹은 한을 담고 있다. 무속에서의 꽃은 생명을 재생하고 주술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sup>65)</sup>

꽃 중에서도 지물로 표현되는 연꽃은 불교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숭배가 되는 존재이다. “길고 구불구불하게 감긴 연꽃의 뿌리는 인간과 그 탄생의 근원을 연결하는 탯줄을 상징하며, 꽃봉오리는 인간의 잠재성을 나타낸다. 눈부신 꽃잎은 새벽 무렵 환하게 피었다가 해가 지면 다시 닫히는데, 이는 드넓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다.”<sup>66)</sup> 지물로 표현된 꽃은 그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 “1.3%인 6개만이 꽃으로 된 지물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쓰였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sup>67)</sup>이라고 전하고 있다.

제주 동자석에 표현된 지물은 사물의 개념이나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출함으로써, 육지의 문인석이나 망주석 등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독특한 조형미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손에 다양한 사물을 든 지물의 형태에서 그 상징의 의미는 제주 사람들의 민속적인 신앙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진다.

65) 심혜금(1999), 전계서, p.139~140.

66) 미란다 브루스 미트포트·필립 윌킨스(2010), 전계서, p.87.

67) 김영익·김민철(2005), 전계서, p.17.

## V. 결론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섬으로, 화산분출로 생성된 돌은 제주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돌 문화를 굳이 삶과 죽음의 문화로 나누다면, 삶을 통해 죽음을 거쳐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경로이기 때문에 이를 서로 떼어 놓고 논하기는 어렵다. 삶과 죽음은 연속성으로 인해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기도 어려운 철학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 자연환경의 영향이 미친 돌 문화 중에서 분묘의 석상을 토대로 하여 동자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 분묘 문화의 형성은 유교사상을 정치적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육지로부터, 제주에 유입된 유배인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의 전파를 통해 분묘에 대한 치장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망자가 내세에서도 편안하고 외롭지 않은 안식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치되었고, 대체로 비석,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 여러 기타석물들로 구성되는데, 이는 망자 집안의 재력에 따라 꾸며지므로 생전의 신분을 말해준다. 그 중에서도 동자석은 어린아이의 형상을 제주 석재로 제작한 석상으로, 동자석뿐만이 아닌 석상 및 석물들 대부분도 제주의 암석으로 제작이 되어 그 지역의 재료로 사용된 특징적 차이들이 표현양식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분묘주변에서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석재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세 고을(제주현, 대정현, 정의현)마다 석재의 차이가 보였지만 때로는 석재가 교류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드문드문 다른 지역에서 채취되는 석재가 분포되기도 하였다. 옛 고을 명칭으로 제주현에서는 현무암이 주로 채취되었기 때문에 많은 석상들이 현무암을 사용하여 묘사보다는 생략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무암은 풍화에 약하고 단단하지 못한 이런 단점들이 오히려 장인들에게 형식화 되지 않은 다양한 변화와 창의적인 표현으로 제주의 동자석을 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장인 개개인의 개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형태 안에서도 동자석의 안면표정이나 지물을 통해 동자석의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하체보다는 상체를 중점으로 표현 되었다. 그리하여 대체로 하체가 생략

된 상체부분으로 3:1 또는 2:1의 비례를 가진 동자석이 대부분이다.

동자석에 표현된 다양한 형태로 지역별로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은 없었지만, 동자석에 안면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얼굴형태가 원형일수록 전체적인 표현은 간단하고 단순한 음각 형태로 경직된 분위기였다. 또한 계란형, 타원형, 각진 형의 경우 두드러진 양각으로, 좀 더 입체적인 형태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눈의 음각과 코의 형태는 얼굴 형태와 상관없이 표현되었다.

다른 석상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조형미로, 물건이나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지물을 말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은 사후세계에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상을 배경으로 사물을 통한 지물이 새겨졌다. 제주사람들에게 있어 지물은 민속신앙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으로 그 만큼 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망자가 생전에 지위했던 권위나 명예를 의미하는 기능, 망자의 심부름 역할을 징표하는 지물, 망자의 혼을 달래주는 기능의 지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의 지리·자연환경으로 인한 제주 석조문화는 제주만의 조형문화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공이 많은 현무암을 비롯하여 질이 무른 제주석재는 세부묘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점으로, 제주 석조물은 전체적으로 육지에 비해 정교하지 못하고, 생략적이고 단순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또한, 지역별로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돌하르방과는 달리, 동자석은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채 옛 장인들 나름의 개성적인 동자석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지역별로 형태를 분류하기에는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반면에 다양한 얼굴 형태로 표현양식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동자석을 중심으로 조형성에 대한 연구는 제주 동자석의 조형미를 재인식하고 앞으로 제주 석조문화의 미적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많은 관심을 받아온 돌하르방처럼 동자석도 현대적 미의식을 담고 있는 조형물로 연구대상이 되어야함과 동시에 조형물로 제작하는 현황은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이를 계기로 다양한 발전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강문규(2007),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강정효(2000), 「화산섬, 돌 이야기」, 도서출판 각  
김유정(2003), 「아름다운 제주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김유정(2006), 「문화북제주-제주의 무덤석물」, 북제주문화원  
김동진(2002), 「제1회박물관 문화강좌 조선시대의 제주와 오현(五賢)」, 국립제주박물관  
김유진·손명철(2007),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고광민(2007),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국립민속박물관(2004),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투바인」  
국립민속박물관(2005), 「중앙아시아 유목민 투바인의 삶과 문화」  
박정근 외8명(2004), 「한국의 석조문화」, 다른세상  
신혜금(1999), 「영주어문」, 영주어문학회  
정경주(2000), 「한국고전 의례 상식」, 신지서원  
윤열수(1995),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카를 구스타프 융(1996), 「인간과 상징」, 주식회사 열린책들

### <논문>

- 김원용(2003), “한국 장승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조선시대 석장승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조각과 조각전공  
이경순(1996), “조선시대 능묘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재목(2008), “朝鮮時代 楚安山 墳墓群의 金石文 研究”,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 대학원

### <국내 학술지>

- 김영익·김민철(2005), “돌하르방과의 비교를 통한 동자석의 가치제고와 동자석의 지물 연구를 통한 설치의 동기분석”, 탐라문화연구소

김우림(2001), “용인지역 분묘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박정애·서은주(1999), “무신도에 표현된 지물의 상징연구 제4호”, 시각디자인학 연구  
양리가(1998), “제주도 동자석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이창훈(2008), “특집3-위기의 향토유산 제주동자석 제14호”, 제주문화원  
용인시·용인문화원(2001), “용인의 분묘문화”, 용인시사편찬위원회·용인대학교 전통문  
화연구소  
정해득(2009), “조선시대 경기지역 묘제석물 연구”, 한신대학교  
주석편(1986), “역주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2003), “제주도지질여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주  
발전연구원

<기타 문헌>

한국.법제처(1981), 「국조오례의 3」, 법제처

<인터넷>

인터넷, [dongja.jejusi.co.kr](http://dongja.jejusi.co.kr)

인터넷, galleryharu cafe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두산 백과사전



<ABSTRACT>

# **A Study on the Plasticity of Jeju Tomb Stone Statue**

**-Focused on Dong-ja Stone-**

Se-um Kang

Jeju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Art, Major in Sculpture

Academic Advisor Prof. Bang-hee Kim

Jejudo is an island formed by volcanic eruption, and life in Jeju has continued with poor environment due to inactive exchange with land. Life and death shown by the lives of these Jeju residents have been strongly related with stone culture. Stone statues which decorate tombs can be regarded as a type of stone culture. This paper adopts Dong ja stone as the subject, and has been analyzed intensively through previous literary research cases and field study.

Jeju stone statues have been built with the formation of tombs which have been influenced by Confucian in the Joseon Dynasty, in a shape different from statues in land due to geological and natural environment conditions. Among forms of funeral for the deceased, honorable tombstones are mainly decorated using gravestone, Dong ja stone, Mun in stone, Mang ju stone, and other various stone figures.

Dong ja stone is a stone produced as the form of a child, and in the

formal aspect, it has an internal meaning of shamanist faith that protects graves and various stone statues. In the functional aspect, it has been built to achieve charm effect. And his thing which Dong ja stone have in his hand portrays the inner side of folk religion to execute role as a patron saint or messenger in order to provide a comfortable resting place in the afterworld for the deceased. Up to date, Dong ja stone and his thing has still shown Jeju tomb culture of shamanist and folk tendency.

Dong ja stone has been produced using Jeju stones like basalt, trachyte, and lava stone. And it has the flaw of easily breaking due to softer texture and less dense structure than land stones. Although Jeju stone is less technical than land stones which are portrayed in detailed form, it expresses omission, moderation and simplicity derived from such materials. which can be regarded as a Jeju stone's own characteristic.

Furthermor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Dong ja stone has expressivity. Meaning or function of Dong ja stone can be known by observing the stone's facial expressions or his thing. And it is generally emphasized on the upper body, leaving out expression of lower body part. In particular, the head takes up a large part of the upper body, and the ratio of head and body can be 3:1 or 2:1.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on Dong ja stone's face, it has shown that the more they have geometrical figures, the more it make us feel like a stiff atmosphere by a simple intaglio method. On the other hand, it has shown that the more they have shapes similar to human, that is less angled, the more it generally make us feel like a soft atmosphere by a three-dimensional engraving in relief.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formative expression of Dong ja stone did not show distinct differences by region as Dolharbang does, but it can be considered a characteristic of Dong ja stone to produce characteristically in the method of omission, moderation and simplicity based on skillful

technology of master craftsmen of the past.

Not only other Jeju stone statues in the middle of Jeju's various stone culture, but also Dong ja stone is a precious legacy from ancestors and it is important that preservation is well led by descendants. The reality of smuggling cultural assets overseas and lack of recognition as cultural assets is a project that requires urgent systematic supplementary work. And it would be needed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Dong ja stone as a cultural legacy which requires to be handled with care for all Jeju residents.

In addition, research has to be continued to rediscover and improve beauty of a sculpture about Jeju stone statues. And there needs to be shed new light on Dong Ja stone, which is being neglected by Jeju residents, in order to discover its various images and be developed into modern sculpture like Dolharbang.

